

노동동향

경제일반

홍서연*

◆ 실물경제지표 상승세 지속

- 2002년 4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이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음향통신기기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2002년 4월 전년동월대비 10.7%나 증가
 - 제품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내수출하(9.2%)보다는 수출출하(13.2%)에 집중
 - 재고는 의복 및 모피, 음식료품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6으로 전년동월대비 3.1포인트 상승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2년 4월에 100.0(1995=100 기준)을 기록하여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표 2 참조)
 -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2002년 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출용 원자재수입액, 임이직자 비율, 재고순환지표 등 5개 구성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0.3%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1995=100)

	2001					2002			
	2월	3월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생 산	8.7	6.4	5.7	5.0	3.3	10.0	-2.7	4.4	7.3
제 조 업	8.7	6.4	5.5	4.8	2.9	9.8	-3.0	4.2	7.4
서 비 스 업	6.0	3.8	5.8	7.8	8.3	9.1	7.1	10.3	10.7
출 하	4.4	4.0	4.1	7.1	2.7	13.5	3.3	7.9	10.9
재 고	15.1	15.3	17.2	1.9	-1.7	-5.1	-9.6	-11.3	-10.2
평균 가동률	73.9	74.0	74.5	73.0	71.8	76.6	76.3	77.5	77.6

주: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4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2년 4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5.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전월대비 %, 1995=100)

	2001						2002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선행종합지수	0.5	0.2	0.1	0.6	1.1	-0.2	1.9	0.7	2.3	0.3
동행종합지수	-0.1	0.2	0.3	0.6	0.5	-0.4	1.4	0.4	0.9	0.3
후행종합지수	-0.1	-0.1	0.1	-0.2	0.0	-0.1	1.7	0.3	0.2	1.2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9.3	99.2	99.2	98.7	98.9	98.2	99.3	99.4	100.0	100.0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2002년 4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5.

◆ 물가상승폭 전월보다 확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1년 5월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로 반전하여 금년 1월부터는 2%대로 낮아졌으나, 2002년 5월에는 소폭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3.0%를 기록(표 3 참조)
 - 석유류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일기불순으로 인한 채소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집세 등의 상승으로 전월대비로는 0.4%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되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
- 2002년 5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5%, 전월대비로는 0.7% 상승(표 3 참조)
 - 전월대비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가격의 상승과 서비스물가의 상승세에 기인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01						2002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지수	4.0	4.8	5.3	3.4	3.4	3.2	2.6	2.6	2.3	2.5	3.0
생활물가지수	5.2	6.4	7.1	3.6	3.7	3.0	2.4	2.4	2.0	2.2	3.1
생산자물가지수	2.8	3.3	3.4	0.6	0.1	-0.7	-0.6	-0.2	0.0	0.7	1.5

자료: 한국은행, 『2002년 5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2. 6.

통계청, 『2002년 5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2. 5.

◆ 수출입 증가세 유지

- 2002년 4월에 1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수출은 5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품목별·지역별로도 증가세 확산(표 4, 그림 1 참조)
 - 2002년 5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4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수입은 경기와 수출회복세의 영향으로 4월에 이어 10%대의 증가세 지속
 - 2002년 5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2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 한편 경상수지는 2002년 4월 0.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월보다는 수지 흑자가 10.1억달러나 축소
 - 4월 중 수출단가지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수입단가는 3.7포인트나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악화
 - 전월대비 수출입 물량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4월의 수출액은 전월대비 0.4억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전월대비 5.3억달러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를 초래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2001					2002				
	3월	4월	5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 상 수 지	1603.3	610.3	2120.4	738.1	15.3	284.2	384.8	1041.3	30.2	-
수 출 액 ¹⁾	14,125	12,121	13,307	12,349	11,914	11,397	11,027	13,278	13,236	14,343
	(-2.1)	(-10.4)	(-9.1)	(-17.6)	(-20.4)	(-9.9)	(-17.4)	(-6.0)	(9.2)	(7.8)
수 입 액 ¹⁾	12,952	11,212	11,555	11,533	11,302	11,329	10,457	11,907	12,541	12,719
	(-8.9)	(-16.0)	(-13.0)	(-18.6)	(-14.2)	(-8.9)	(-17.9)	(-8.1)	(11.8)	(10.1)

주 :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2년 5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2002. 6.

한국은행, 『2002년 4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2. 5.

<표 5> 수출입 단가지수와 물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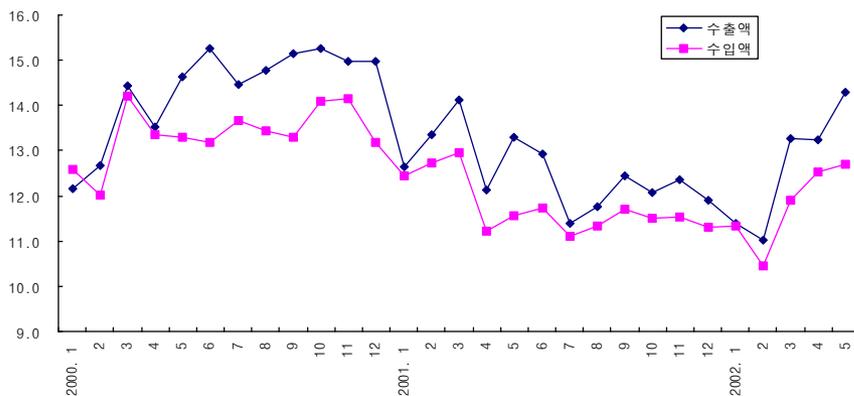
(단위 : 2000=100)

		2001					2002			
		3월	4월	5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 출	단가지수	92.2	90.2	89.7	80.3	80.4	82.9	82.5	86.2	86.3
	물량지수	106.5	95.4	101.9	109.7	102.8	98.0	92.5	108.3	109.3
수 입	단가지수	95.3	93.3	92.4	84.5	81.4	80.3	80.1	82.2	85.9
	물량지수	102.4	91.2	94.6	103.6	105.0	107.2	99.1	110.6	110.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그림 1] 수출액과 수입액의 변화

(단위 : 10억달러)



노동동향

고용

홍서연*

◆ 실업률 2.9%로 하락

- 2002년 5월 중 실업자는 661천명(실업률 2.9%)을 기록하여 2002년 4월의 707천명보다 46천명 감소(표 1 참조)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444천명) 증가한 22,223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도 163천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22,88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한 13,900천명
 - 취업자 증가율이 안정화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게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자가 대부분 취업으로 흡수되고 있음.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1			2002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1,763(0.3)	22,352(1.8)	22,559(1.7)	22,292(2.4)	22,768(1.9)	22,884(1.4)
참가율	59.8	61.4	61.9	60.7	61.9	62.2
취업자	20,728(0.3)	21,504(2.1)	21,779(2.0)	21,523(3.8)	22,060(2.6)	22,223(2.0)
실업자	1,035	848	780	769	707	661
실업률	4.8	3.8	3.5	3.4	3.1	2.9
비경제활동인구	14,619(2.1)	14,053(-0.2)	13,874(-0.2)	14,441(-1.2)	13,992(-0.4)	13,9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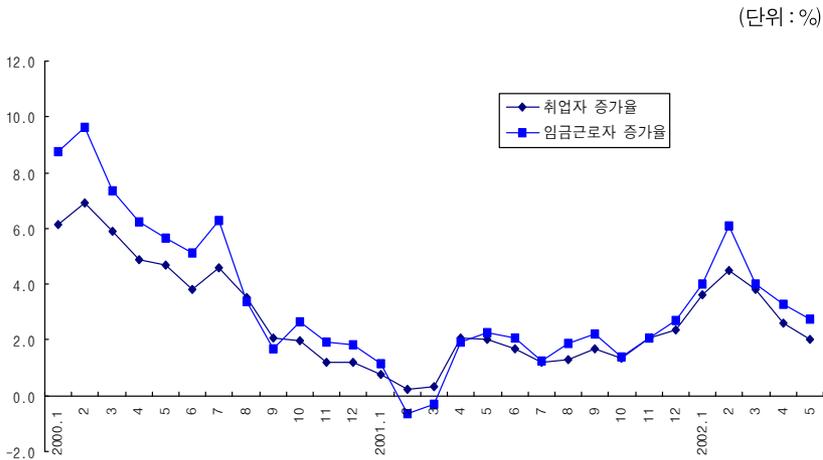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2년 5월 고용동향』, 2002. 6.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46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163천명 증가(그림 1 참조)
 - 2001년 5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68천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는 275천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2001년 5월 61.9%에 비해 0.3%포인트 증가

[그림 1]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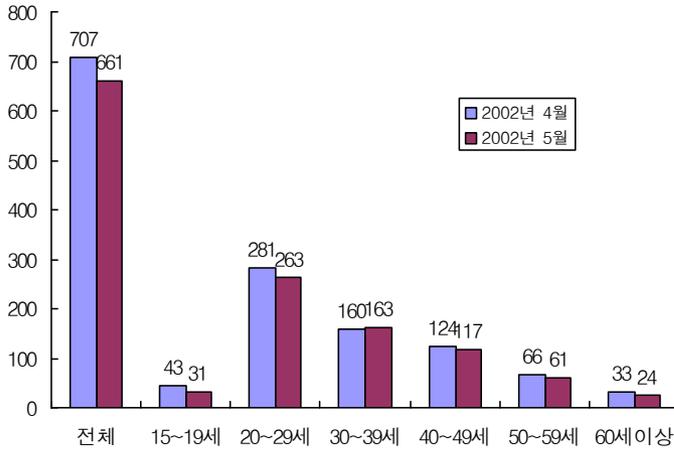


◆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감소

- 전월대비 실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속히 하락(그림 2 참조)
 - 실업자는 20대에서 전월대비 18천명, 실업률은 10대에서 전월대비 3.3%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
 - 15~19세의 실업률은 9.2%로 전년동월대비 2.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20대(6.1%)는 0.6%포인트 하락하였으며 40대(1.9%)는 0.8%포인트 하락

[그림 2]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02년 5월 고용동향』, 2002. 6.

◆ 구직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가 크게 감소

- 구직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실업자는 전월대비 29천명 증가한 반면, 3개월 미만인 단기 실업자는 73천명 감소하였음(표 2 참조).

<표 2> 구직기간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2002. 4.	2002. 5.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체	707	661	-46
3개월 미만	450	377	-73
3~6개월	170	199	29
6~12개월	81	69	-2
12개월 이상	16	16	0

자료: 통계청, 『2002년 5월 고용동향』, 2002. 6.

◆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치중

○ 전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163천명(2.0%) 증가(표 3 참조)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26천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45천명)에서 취업증가가 두드러짐.
- 그러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전월대비 30천명이 감소
- 제조업의 취업자는 전월대비 11천명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2% 감소하여 2001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고용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농림어업의 취업자 역시 전년동월대비 4.3%나 감소
- 경기회복이 일부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뿐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업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2002. 4.	2002. 5.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 산업	22,060	22,223	163
농림어업	2,247	2,351	104
광업	21	21	0
제조업	4,190	4,201	11
건설업	1,749	1,775	2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46	5,916	-30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793	5,838	45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14	2,120	6

자료: 통계청, 『2002년 5월 고용동향』, 2002. 6.

○ 노동력 이동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및 서비스부문에서 신규취업이 증가(표 4 참조)

- 5월 중 신규취업자는 742천명으로 이 중 약 26.8%인 199천명은 실업에서 취업한 반면, 약 73.1%인 543천명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
- 신규취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9.5%, 219천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23.0%, 171천명), 농림어업(16.7%, 124천명)에 치중
- 특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동하였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9.4%, 152천명)과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70.1%, 120천명)도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유입

<표 4> 신규취업자의 산업별 분포(4월 → 5월)

(단위: 천명, %)

	전 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창고·금융
전 체	742(100.0)	124(16.7)	120(16.2)	72(9.7)	219(29.5)	171(23.0)	37(5.0)
실 업 자→취업자	199(100.0)	4(2.0)	37(18.6)	27(13.6)	67(33.7)	50(25.1)	15(7.5)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543(100.0)	121(22.3)	83(15.3)	45(8.3)	152(28.0)	120(22.1)	22(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4~5월 원자료.

◆ 2002년 3월 무기계약 근로자 중 58.7%가 상용근로자

○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유기계약 근로자 중 35.2%가 상용근로자인 반면, 무기계약 근로자 중 7.4%는 일용근로자로 나타남(표 5 참조).

- 시간제근로자는 560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시직 또는 일용직임.
- 독립도급근로자는 91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분의 1은 상용직임.
- 일용대기근로자는 50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
- 파견근로자는 126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는 상용직임.
- 용역근로자는 340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임시직임.

○ <표 5>의 전일제 직접고용에 속하는 임금근로자를 근로계약 유무, 계약기간, 근로지속가능 여부로 나누어 분석

- 유기계약근로 중 임시·일용근로자 전체가 1년 미만의 계약이며, 무기계약근로 중 7.4%는 일용근로자로 나타남(표 6 참조).
- 1년 미만 유기계약 근로자 중 근로지속가능한 경우는 35.9%이며, 이 중 55.0%는 임시근로자이며, 45.0%는 일용근로자임.
- 근로지속가능한 무기계약 중 60.3%는 상용근로자이며, 33.0%는 임시근로자임.
- 상용직 근로자 중 94.1%, 임시직 근로자 중 88.6%, 일용직 근로자 중 56.4%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임.

<표 5> 2002년 3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분포

(단위 : 천명, %)

	상 용	임 시	일 용	전 체
무기계약	5,806 (58.7) [88.6]	3,352 (33.9) [72.4]	728 (7.4) [31.5]	9,887
유기계약	335 (35.2) [5.1]	222 (23.3) [4.8]	396 (41.6) [17.1]	953
시간제근로	12 (2.1) [0.2]	247 (44.1) [5.3]	301 (53.8) [13.0]	560
일용대기	0 (0.0) [0.0]	0 (0.0) [0.0]	504 (100.0) [21.8]	504
파견근로	51 (40.5) [0.8]	46 (36.5) [1.0]	29 (23.0) [1.3]	126
용역근로	100 (29.4) [1.5]	178 (52.4) [3.8]	62 (18.2) [2.7]	340
독립도급	224 (24.5) [3.4]	512 (56.0) [11.1]	178 (19.5) [7.7]	914
재택근로	23 (10.8) [0.4]	76 (35.7) [1.6]	115 (54.0) [5.0]	213
전 체	6,551 (48.5) [100.0]	4,633 (34.3) [100.0]	2,313 (17.1) [100.0]	13,497

주: ()안은 각 고용형태 중 종사상지위의 비율, []안은 각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중 고용형태의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부가조사』 원자료.

<표 6> 2002년 3월 임금근로자의 계약형태 분포

(단위 : 천명, %)

		상 용	임 시	일 용	전체
유기계약 전체		336 (35.2) [5.5]	222 (23.3) [6.2]	397 (41.6) [35.3]	954
1년 미만	지속 불가	0 (0.0) [0.0]	100 (25.3) [2.8]	297 (75.0) [26.4]	396
	지속 가능	0 (0.0) [0.0]	122 (55.0) [3.4]	100 (45.0) [8.9]	222
1~3년 이하	지속 불가	13 (100.0) [0.2]	0 (0.0) [0.0]	0 (0.0) [0.0]	13
	지속 가능	230 (100.0) [3.7]	0 (0.0) [0.0]	0 (0.0) [0.0]	230
3년 초과	지속 불가	6 (100.0) [0.1]	0 (0.0) [0.0]	0 (0.0) [0.0]	6
	지속 가능	87 (100.0) [1.4]	0 (0.0) [0.0]	0 (0.0) [0.0]	87
무기계약 전체		5,807 (58.7) [94.5]	3,352 (33.9) [93.8]	729 (7.4) [64.7]	9,887
1년 이하 지속가능		8 (5.8) [0.1]	67 (48.2) [1.9]	65 (46.8) [5.8]	139
1년 초과~3년 이하 지속가능		9 (6.9) [0.1]	93 (71.5) [2.6]	28 (21.5) [2.5]	130
3년 초과 지속가능		8 (22.2) [0.1]	27 (75.0) [0.8]	1 (2.8) [0.1]	36
지속가능		5,782 (60.3) [94.1]	3,165 (33.0) [88.6]	635 (6.6) [56.4]	9,582
유·무기계약 전체		6,143 (56.7) [100.0]	3,574 (33.0) [100.0]	1,126 (10.4) [100.0]	10,841

주: ()안은 각 계약형태 중 종사상지위의 비율, []안은 각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중 계약형태의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부가조사』 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및 근로시간

강승복·이시균*

◆ 2002년 3월 중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128.0만원을 기록

○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28.0만원으로 2001년 8월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121.2만원에 비해 5.5% 상승(표 1 참조)

－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2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4.4% 상승

<표 1>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 8.	2001. 8.	2002. 3.
월평균 임금	1,131	1,212	1,280
평균임금 증감률	-	7.2	5.5
소비자물가증감률	2.5	4.7	1.1
실질임금 증감률	-	2.4	4.4

주: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산업별 평균임금

○ 월평균 임금의 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2001년 8월에 비해 가장 높은

*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표 2 참조)

- 2002년 3월 중 월평균 임금은 2001년 8월에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던 건설업에서 9.0% 상승하여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서 4.7% 상승하여 여전히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

○ 2001년 8월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인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업은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평균임금은 101.6만원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업의 평균임금은 각각 179.7만원, 163.2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

<표 2> 산업별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 8.	2001. 8.	2002. 3.
전 산업	1,131	1,212 (7.2)	1,280 (5.5)
제조업	1,135	1,226 (8.0)	1,306 (6.5)
전기·가스 및 수도업	1,543	1,684 (9.2)	1,797 (6.7)
건설업	1,113	1,237 (11.2)	1,348 (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06	966 (6.6)	1,016 (5.2)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50	1,446 (7.1)	1,521 (5.2)
금융 및 보험업	1,417	1,543 (8.9)	1,632 (5.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216	1,287 (5.9)	1,348 (4.7)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직종별 평균임금

○ 직종별 평균임금 동향을 보면, 고위관리직과 전문가 직종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인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는 여전히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각각 76.9만원, 77.2만원, 95.8만원으로 고위관리직의 270.2만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고위관리직과 전문직과의 임금격차도 83.6만원으로 고속련 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 평균임금상승률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직종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낮았으며, 임금수준이 높은 고위관리직은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여 직종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
 - 2001년 8월에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던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직종은 0.7%의 임금감소를 보인 반면,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던 고위관리직은 11.2%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
 - 그밖에 숙련수준이 비교적 높은 전문가 직종이나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은 2001년 8월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반면,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직종은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어 직종간 임금격차는 확대

<표 3> 직종별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 8.	2001. 8.	2002. 3.
전 직 종	1,131	1,212 (7.2)	1,280 (5.5)
고위관리직	2,339	2,431 (3.9)	2,702 (11.2)
전문가	1,808	1,777 (-1.7)	1,866 (5.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67	1,523 (3.8)	1,599 (5.0)
사무직원	1,231	1,359 (10.5)	1,439 (5.9)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818	922 (12.6)	958 (4.0)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713	775 (8.6)	769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74	1,144 (6.5)	1,197 (4.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169	1,263 (8.1)	1,339 (6.0)
단순노무직 종사자	719	741 (3.1)	772 (4.3)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과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2~3년 근속한 경우에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

(표 4 참조)

- 3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 8.9%로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6.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2~3년 근속한 경우는 2.5%, 1~2년 근속한 경우는 3.4%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
- 근속기간별 임금격차는 2001년 8월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평균임금은 176.9만원으로 3개월 미만(84.8만원)의 2.1배, 3~6개월(94.1만원)의 1.9배, 6~12개월(101.7만원)의 1.7배에 해당

<표 4>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2000. 8.	2001. 8.	2002. 3.
전 체	1,131	1,212 (7.2)	1,280 (5.5)
3개월 미만	706	779 (10.3)	848 (8.9)
3~6개월	837	894 (6.8)	941 (5.3)
6~12개월	914	975 (6.1)	1,017 (4.4)
1~2년	983	1,076 (9.5)	1,113 (3.4)
2~3년	1,057	1,160 (9.7)	1,189 (2.5)
3년 이상	1,475	1,656 (12.3)	1,769 (6.8)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성별 평균임금

-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
-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1%를 기록하여 여성의 5.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001년 8월에 166.5, 2002년 3월에 167.8로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
-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2001년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1.5만원으로 남성근로자의 153.5만원의 60% 수준

<표 5> 성별 평균임금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여자 임금=100)

	2000. 8.		2001. 8.		2002. 3.	
		격차		격차		격차
남 자	1,348 (-)	167.4	1,446 (7.3)	166.5	1,535 (6.1)	167.8
여 자	805 (-)	100.0	868 (7.9)	100.0	915 (5.3)	100.0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학력별 평균임금

○ 학력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의 평균임금은 169.3만원으로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87.1만원과 고졸의 120.7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와 고졸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5%, 5.1%로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임금상승률 4.2%보다 높아 학력간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
- 고졸의 평균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 2000년 8월에 73.6, 2001년 8월에 72.8, 2002년 3월에 72.2로 나타나 학력간 임금격차는 확대

<표 6> 학력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고졸 임금=100)

	2000. 8.		2001. 8.		2002. 3.	
		격차		격차		격차
중졸이하	787 (-)	73.6	835 (6.1)	72.8	871 (4.2)	72.2
고 졸	1,070 (-)	100.0	1,148 (7.3)	100.0	1,207 (5.1)	100.0
대졸이상	1,513 (-)	141.4	1,605 (6.1)	139.9	1,693 (5.5)	140.3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여전

-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임시직의 평균임금은 상용직의 55.6%, 일용직은 43.5%에 해당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상용직의 평균임금은 170.3만원으로 임시직 94.7만원, 일용직 74.1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상용직 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2000년 8월에 임시직은 56.9, 일용직은 44.8, 2001년 8월에 임시직 56.4, 일용직 44.8, 2002년 3월에 임시직 55.6, 일용직 43.5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종사상 지위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상용직 임금=100)

	2000. 8.		2001. 8.		2002. 3.	
		격 차		격 차		격 차
상 용	1,496 (-)	100.0	1,599 (6.9)	100.0	1,703 (6.5)	100.0
임 시	851 (-)	56.9	901 (5.9)	56.4	947 (5.1)	55.6
일 용	670 (-)	44.8	716 (6.9)	44.8	741 (3.5)	43.5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8, 2001. 8, 2002. 3) 원자료.

◆ 다양한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더욱 세분화한 다양한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일제근로의 평균임금이 142.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근로는 전일제근로의 35%에 불과한 49.8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기록(표 8 참조)
 - 간접근로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평균임금은 각각 107.5만원, 82.5만원으로 일정한 격차를 보임.
 - 특수고용에 속하는 독립도급근로의 평균임금은 123.4만원으로 전일제근로의 86.7% 수준에 이르는 반면, 일용대기근로와 재택근로의 평균임금 수준은 전일제근로의 47.8%, 37.3% 수준에 그쳐 동일한 특수고용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독립도급근로가 2001년 8월에 비해 12.9% 상승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용대기근로는 2.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전일제근로의 평균임금은 2001년 8월에 비해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도급근로를 제외한 다른 고용형태에서는 모두 전일제근로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

<표 8> 다양한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2001. 8.	2002. 3.
전 체	1,209	1,280 (5.5)
전일제근로	1,344	1,422 (6.1)
시간제근로	477	498 (4.3)
파견근로	1,028	1,075 (4.6)
용역근로	793	825 (4.0)
일용대기근로	664	680 (2.5)
독립도급근로	1,093	1,234 (12.9)
재택근로	512	530 (3.5)

주: 1)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 8, 2002. 3) 원자료.

◆ 2002년 3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50.4시간 기록

- 2002년 3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조사대상 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50.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는 6.4시간 높은 수준
- 상용직과 임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약 52시간으로 유사한 수준이고 일용직은 43.3시간으로 상용·임시직에 비해 약 17%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임금수준에서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은 약 2배의 차이가 남.
 - 시간당 임금을 보면 1시간 근로를 통하여 상용직은 7,900원, 임시직은 4,200원, 일용직은 3,8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및 임금

(단위: 시간, 천원)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상용직	51.9	1,779.8	7.9
임시직	51.8	946.4	4.2
일용직	43.3	713.9	3.8

주: 시간당 임금은 $\frac{\text{월평균임금}}{\text{월평균근로시간}}$ 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2. 3.

◆ 근로계약유무별 주당근로시간

- 유계약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45.4시간, 무계약 근로자가 50.9시간으로 나타나 약 11%의 차이가 남.
 - 근로시간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유계약 근로자가 단시간(36시간 이하) 근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19.8%).
 - 장시간(45시간 이상)근로는 무계약 근로자가 더 높게 나타남(73.7%).

<표 10> 근로계약 체결 유무별 주당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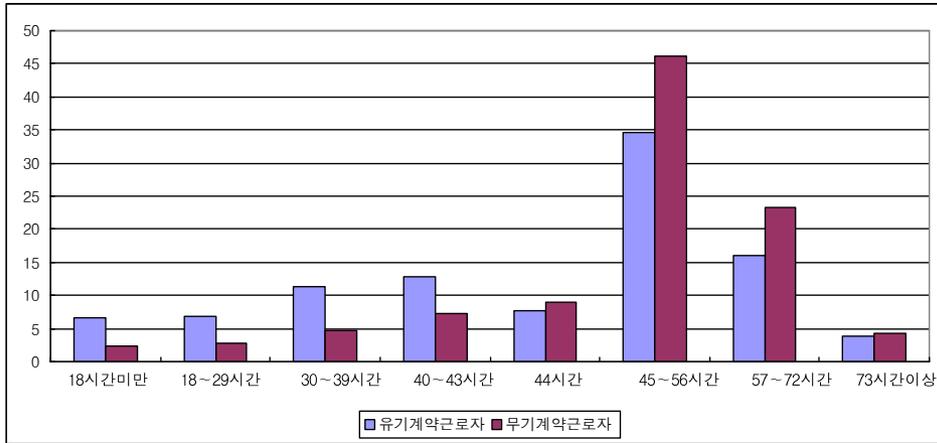
(단위: 시간)

	유계약	무계약
전 체	45.4	50.9
상용직	50.7	51.9
임시직	46.4	52.3
일용직	41.4	43.9

자료: <표 9>와 같음.

[그림 1] 근로계약 체결 유무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



◆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 용역근로, 파견근로를 통상근로(일용대기, 용역근로, 파견근로, 재택근로, 독립도급 등의 형태를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형태)와 비교하면,
 - 파견근로의 근로시간은 통상근로와 유사한 반면, 용역근로의 근로시간은 통상근로보다 약 9%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 단시간근로(36시간 미만)는 용역근로가 가장 낮고(5.0%), 44시간 구간(법정근로 시간)에서는 통상근로가 가장 높음(9.6%).
 - 장시간근로(45시간 이상)는 용역·파견근로가 통상근로보다 약 3~5% 정도 높게 나타남.
 - 최장시간근로인 73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용역근로의 비율이 다른 두 근로형태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9.5%).
 - 따라서 용역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근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 용역, 파견, 통상근로별 주당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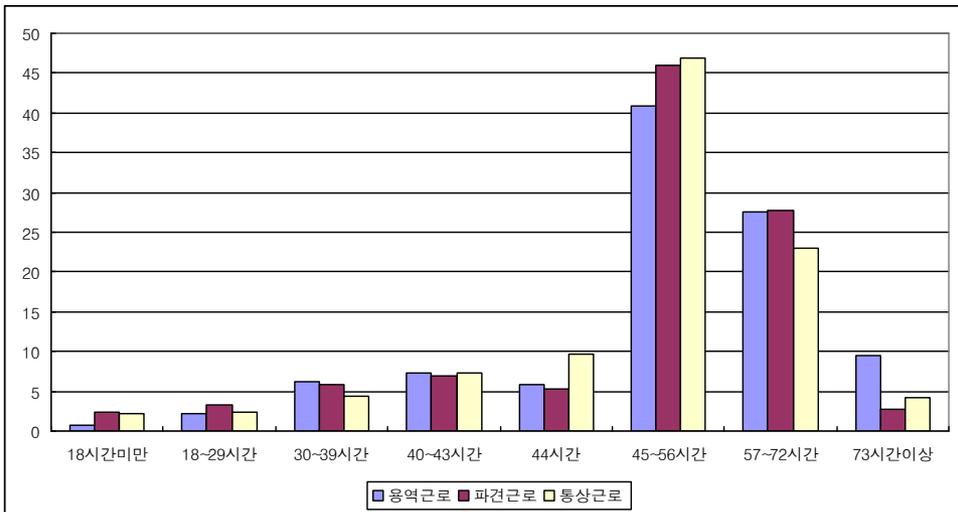
(단위: 시간)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통상근로자
전 체	55.5	50.3	51.0

자료: <표 9>와 같음.

[그림 2] 용역, 파견, 통상근로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노동동향

노사관계

이시균·진숙경*

I.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크게 증가

- 2002년 5월 31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도 크게 증가(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7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에 비해 1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인수는 각각 46,148명과 395.7천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986명과 195.6천일보다 크게 증가
 - 5월 들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민주노총의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시기가 월드컵으로 인해 앞당겨졌기 때문
 -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분규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월드컵이 진행되는 6월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진숙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indorl@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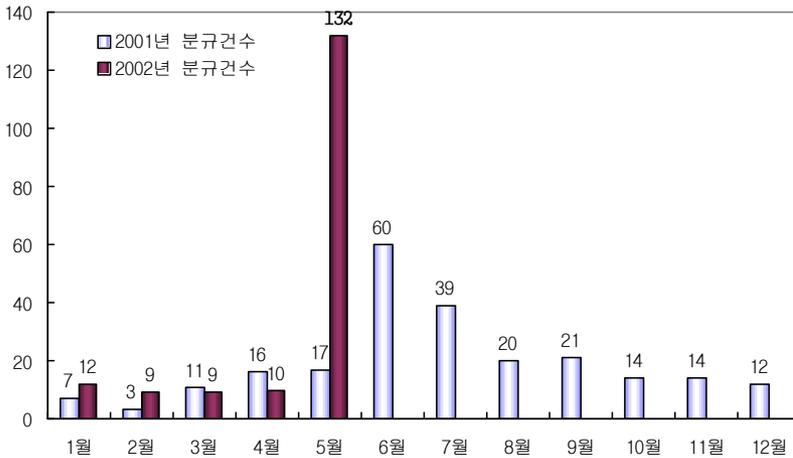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2000년 5월 31일	2001년 5월 31일	2002년 5월 31일
노사분규 발생건수	59	54<16>	172<11>
분 규 참 가 자 수	88,432	8,986<4,015>	46,148<732>
근 로 손 실 일 수	630.2	195.6	396.7

주: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노동부.

[그림 1] 노사분규 발생건수 월별 추이(2001, 2002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 확정

-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 직업병감시체계 구축확대, 직업병역학조사 수행능력보강,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을 확정·발표

- 직업성 질환의 급증추세에 대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의 중·고령화, 여성 근로자, 이주 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DMAc 등 80여종이 새로 추가된 200여종으로 확대하고, 직업성 천식과 피부질환에 국한된 수시건강진단에 최근 문제가 제기된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
 - 전문성에 기초한 양질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자격을 산업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인정의(認定醫)로 제한하고, 의사 1인의 하루 적정실시 인원기준도 설정
 - 또한 희망하는 의사에게 원하는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선택권을 보장
 -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집단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특수건강진단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에 대한 2차 검사는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
 - 직업병유소견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개인표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
- 「근로자건강감시체계」의 수립으로 단기적으로 직업성 질환의 발생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금융산업노사 주5일 근무제 도입 합의

-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노조)은 5월 22일 사용자대표자와 교섭을 갖고 연월차를 활용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 금융산업노조는 1998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사측에 단협사항으로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1999년부터는 노사가 시간단축에 공감하는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별도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 왔음.
 - 금융산업노조가 2002년 임단협에서 사측에 주5일제 실시를 주요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노사 양측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
 - 결국 금융산업노사는 5월초 대표단 교섭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후 5월말 실무자 교섭, 임원급 전체 교섭, 임원급 대표단 교섭, 대표자 교섭 등 탄력적 교섭 방식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전격 합의
- 금융산업노사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 토요일 휴무를 활용한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5일 근무제는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 8일, 월차휴가 12일, 특별휴가(체력단련휴가) 6일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체력단련휴가는 폐지
 - 시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사공동으로 해결토록 노력
 -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즉시 재협의
 - 청원휴가는 본인 결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때 5일을 주기로 하는 등 조정
- 한국노총은 금번 금융산업노사의 주5일 근무제 합의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개별사업장 차원의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
 -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협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번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타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 한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은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5일제를 현장에서 직접 도입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휴가일수 축소를 통한 주5일제 실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
-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의 경영계는 금번 금융산업노사의 주5일제 합의는 대다수 제조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함으로써 일반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산업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 또한 경총과 대한상의는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노동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개별 기업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경련은 금융산업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은 주5일 근무제가 상당 수준 도입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금번 금융산업의 주5일제 도입 합의는 금융산업의 업종특수환경에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타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나 금융산업과 여건이 비슷한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제2금융권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전조직 차원의 통일된 요구안을 갖고 공동교섭으로 주5일제를 추진할 방침
 - 13개 정부투자기관노조도 금융산업에 이어 주5일 근무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

◆ 민주노총, 월드컵시기를 앞두고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전개

- 민주노총은 5월 22일 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투쟁을 전개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산별 기본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산중공업, 통일중공업, 만도기계, 영창악기 등 93개 사업장에서 부분·전면파업에 돌입
 - 민주화학섬유연맹에서 금호타이어노조, 보위터한라제지노조, 삼우화학공업노조 등이 파업에 참가
 -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근무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22개 병원에서 파업투쟁을 전개
 - 공공연맹에 속한 사회보험노조와 경기도노조는 노사합의 이행, 실질임금 쟁취,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파업에 참여

- 민주택시연맹은 140여개 사업장에서 사납급 철폐와 완전월급제 수용 등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
- 민주노총의 임단투 시기집중 파업에 대해 경영계는 월드컵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
- 금번 민주노총의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투쟁은 병원, 택시 등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월드컵기간에도 지속
 - 민주택시연맹은 대부분 임단협 타결로 파업이 철회되었으나 인천 등 4개 지역 34개 사업장은 부분·전면파업 지속
 -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등 8개 병원은 임단협 타결지연에 반발하여 부분·전면파업을 지속
 - 금속노조는 전국적으로 17개 사업장에서 부분·전면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주,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기본협약에 합의
 - 민주노총은 장기분규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월드컵기간 중에도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

◆ 지방자치선거에서 양대노총이 지원하는 노동계 후보 84명 당선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계 후보를 모두 84명 당선시킨 것으로 집계
 - 한국노총은 기초자치단체장 3명, 광역의원 9명, 기초위원 27명 등 39명을 당선시켰음.
 -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은 후보 중 당선된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45명으로 집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금번 선거결과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대거 공천·출마시킨 민주노동당이 전국적인 고른 득표를 바탕으로 제3당으로 부각됨에 따라 진보정치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
 -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 기존 정치권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인식하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